

소재 노수신과 서애 류성룡의 경세론, 그 실천과 의의

정 우 략*

- I. 머리말
- II. 格致에 대한 입장과 양명학
- III. 경세론과 그 실천의 문제
- IV. 노수신과 류성룡 경세론의 의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노수신과 류성룡은 사상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에 대한 인식의 태도 및 경세론이 사뭇 다르게 나타났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되 양명학을 수용하는 시기와 농도는 물론이고, 格物致知와 尊德性·道問學에 대한 입장, 경세론과 그 실천의 문제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노수신은 치지를 통해 군주가 마땅히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개혁적인 인물을 적극 추천하였다면, 류성룡은 제왕학을 明體適用之學으로 요약하고 치세와 난세에 따라 경세를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노수신과 류성룡의 경세론은 주자주의 일변도로 치닫는 조선 사상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양명학적 사유의 시대적 응전과 그 결과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 관료형 士林이 지니고 있었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jwl0412@knu.ac.kr

던 실천성의 사상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낙동강 연안학문인 江岸學的 시각에서 일정한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 다양한 의의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리고 임란 전에 활동한 노수신의 양명학은, 류성룡이 임란을 거치면서 주자학에 바탕한 양명학적 실천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노수신은 이언적을 스승으로 삼아 이황과 사상적 경쟁을 벌이면서 류성룡을 탄생시켰다. 이황이 이언적의 행장을 찬술하면서 그에게서 성리학적 순수성과 깊이를 보았다면, 노수신은 이언적 찬술의 『大學章句補遺』를 통해 그에게서 양명학적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한편 이황의 제자 류성룡은 스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양명학을 비판하였지만, 만년까지 양명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양명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 그리고 비판적 수용을 통해 한국사상사는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조세 노수신, 서애 류성룡, 경세론, 실천, 주자학, 양명학, 존덕성, 도문학, 비판적 수용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조선시대를 주자학 일색이라 단정하며, 사상사가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는 조선시대 사상사 전체를 범박하게 이야기하거나, 李滉(1501~1570) 이후의 주류 사상사를 논할 때만 설득력을 지닌다. 고려말, 이 땅에 성리학이 유입되면서 고려의 사상계를 혁신하는 측면에서 주자학이 특별히 강조되기는 하였으나, 조선 전기는 사상사적으로나 문화사적으로 고려의 그것이 여전히 지속되었고, 새로운 흐름인 주자학 역시 이해의 정도가 그렇게 깊었다고 할 수 없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조선시대의 사상사는 주자학이 담지한 주류 사상과 함께 거기에 혹은 맞서고 혹은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비주류 사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주류는 조광조의 도학 근본주의, 이황의 주자학 절대주의, 송시열의 주자학 교조주의¹⁾를 이루면서 조선시대 사상계를 지배하였다. 이에 비해 비주류는 주자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선학, 노장학, 양명학 등을 탄력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조선의 사상사를 풍부하면서 역동적이게 했다. 이에 동참한 지식인은 金時習(1435~1493), 徐敬德(1489~1546), 曹植(1501~1572), 盧守愼(1515~1590), 李睟光(1563~1629), 許筠(1569~1618), 張維(1587~1638), 鄭齊斗(1649~1736), 洪大容(1731~1783) 등이다.²⁾

성리학이 도학 근본주의, 주자학 절대주의, 주자학 교조주의로 구심력

1) 이동환, 「16세기 조선 사상계의 동향과 노수신」,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정치·의새 지평』, 학자원, 2016, 75쪽. 이 글에서 이동환은 “이황에 의해 추동된 주자학 유일화는 조광조 시대에 허용되었던 최소한의 다양성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라고 서술한 바 있다.

2) 이들은 모두 주자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 성리학의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개방적 사유를 지녔으므로 주자 성리학에 불철저하였던 것처럼 보인다. 일례로 최진덕은 「주자학 속에 숨은 양명학: 노수신의 주자학과 그의 인심도심 해석」(『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에서, 노수신이 주자학의 본체론에 충실하였다고 보고 “주자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의 양명학은 극단화 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니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명학 혹은 친양명학적 사유를 지닌 학자들은 비주류 혹은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어떤 지점에 서서 사상사적 고뇌를 거듭하였다. 주자 근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의 주자학은 불철저한 것이었으므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황이 서경덕과 조식의 학문을 氣學이나 南華學的 요소가 있다며 비판하거나³⁾ 柳壽垣(1694~1755)이 노수신과 장유를 陸王學에 물들었다며 비판⁴⁾하는 등 허다한 異學論爭을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양명학의 경우, 16세기 초 朴祥과 金世弼 등에 의해 수용되면서 많은 논란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대한 관심은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국면을 맞아 더욱 증폭되었다. 1594년(선조 27) 7월 17일, 선조와 柳成龍(1542~1607)이 양명학을 두고 벌였던 대화는 이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 준다. 당시 선조는 양명학에 깊은 호감을 갖고, ‘만약 양명에게 오늘의 일을 경략하게 하였더라면 적을 소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양명학이 지닌 실천성과 실용성을 강조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조는 ‘良知를 이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류성룡에게 묻자, 류성룡은 이에 대하여 “이 말은 거짓입니다.”⁵⁾라며 잘라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양명학에 대한 관심이 조야에서 두루 일어났던 사실을 바로 알게 한다.

주자학이 조선사상사의 주류로 정착해가는 과정에서 양명학은 그 대항논리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본 논의는 노수신과

3) 이황의 異學 비판은 이인철, 「퇴계의 이단배척과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59, 한국 교육철학회, 2016 ; 주재협, 「異學 비판을 통해 본 ‘退溪心學’」, 『동양철학』 40, 한국 동양철학회, 2013 등에서 논의되었다.

4) 柳壽垣, 『迂書』 권10, <論變通規制利害>, “輓近虛寡悔張持國, 頗染陸王氣味. 然, 亦因文字生活, 略生別見之致.”

5) 『宣祖實錄』 권53, 1594년(선조 27) 7월 17일 조, “上曰, 陽明之言曰, 致良知. 成龍曰, 此言僞矣.” 이에 대하여 선조는 “양명은 효의 이치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하였으니 어찌 아버지가 살고 죽는 것으로써 효성의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류성룡은 “장사지내기를 예로써 하고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하는 것은 다 효의 도로써 각각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어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양명도 어릴 적에 책을 한 글자도 읽지 않고 다만 良知만을 이루고자 하였다면 매사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류성룡의 양명학적 입장과 이와 관련한 경세론 및 그 의의를 두루 다루고자 한다. 본 논의는 기본적으로 노수신과 류성룡을 비교사상론적 측면⁶⁾에서 파악하였다. 비교사상론에서는 둘 이상의 사상을 비교하기도 하고, 한 사상에 대한 두 사상가의 입장을 비교하기도 한다. 본고는 뒤의 것에 더욱 밀착되어 있다고 하겠다.

두 사상가를 비교하고자 하면 동질성과 이질성이 동시에 발견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두 인물은 매우 이상적인 관계에 놓인다. 이 둘은 상주라는 지역적 친연성,⁷⁾ 상주 소재 도남서원의 공동 제향,⁸⁾ 鄭琢(1526~1605)과 함께 이 둘이 놀았다는 겸암정사 옆 三印石 바위 전설,⁹⁾ 노수신과 류성룡의 아버지인 柳仲郢(1515~1573)의 친밀성¹⁰⁾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서인 강경파인 趙憲(1544~1592)으로부터 노수신이 류성룡의 논의에 미혹되었다며 비판받기도 하고,¹¹⁾ 광해군조에는 이 두 사람을 함께 宣祖廟에 배향하고자 하는 논의

-
- 6) 김태창, 「比較思想論 序說: 그 前提와 視角과 研究方向에 關한 豫備考察」, 『아카데미논총』 14,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6, 19쪽.
 - 7) 노수신은 서울의 樂善坊 乾川洞에서 태어났지만 7대조 盧尙仁이 상주에 입향한 이래 京邸와 鄉邸를 오가며 생활하였다. 이 때문에 그 스스로 “사랑스런 내 고향은 상주현 화령[可愛我鄉里, 尙州縣化寧]”이라 할 수 있었다. 류성룡은 외가인 경상도 義城 沙村에서 태어났으며, 1580년(선조 13) 39세에 吏曹參議를 거쳐 특명으로 尙州牧使에 부임하여 정경세와 이준 등의 제자를 길렀다.
 - 8) 도남서원은 1606년(선조 39) 창건과 동시에 鄭夢周·金宏弼·鄭汝昌·李彦迪·李滉의 위패를 모셨고, 1616년(광해군 8)에 盧守愼·柳成龍, 1635년(인조 13)에 鄭經世를 추배하였다.
 - 9) 노수신과 정탁, 그리고 류성룡이 여기서 인끈을 풀어놓고 함께 놀았다고 한다. 이들이 모두 제상을 지냈으므로 이 같은 이야기가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 10) 노수신과 류중영은 동갑으로 어려서부터 막역한 관계였다. 류중영이 죽자 노수신은 제문 <祭柳監司文>을 지어, “居之同, 生之年同, 其爲志也又同. 愛公者我, 知我者公”이라 하였고, 묘갈명 <有明朝鮮國通政大夫, 守黃海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柳公墓碣銘>도 지었다.
 - 11) 『宣祖修正實錄』 권21, 1587년 9월 1일 조에, “盧守愼은 을사사화를 겪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당초에는 晩節을 보전하고자 하지 않은 것이 아니나 류성룡의 의논에 미혹되어 중년의 건식을 변경하였고 배회하면서 여생을 마치려 하였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도 있었다.¹²⁾

노수신과 류성룡은 주자학과는 각도를 달리하는 양명학에 공감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이황과 金宇顥(1540~1603)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의 양명학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시기에 따른 양명학의 농도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노수신과 류성룡 사상의 이러한 경향은 본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 질 것이지만, 이들의 주자학과 양명학에 대한 태도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서로 다른 실천 역량으로 나타났다. 노수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류성룡은 임진왜란 이후에 재상으로서 정국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실천에 내재되어 있는 경세론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 역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선 노수신과 류성룡은 27세의 나이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온유한 성품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측면에서 공감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노수신은 동인 강경파인 宋應灝(1536~1588)와 許筠(1551~1588)이 李珥(1536~1584)를 공격하다 처벌된 것을 두고 그는 온당한 조치라고 하면서도 이에 연루된 류성룡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다.¹³⁾ 정치적인 실무에 있어 서로 상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 관련하여 李裕元(1814~1888)은 『임하필기』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판서 李潤慶의 시호를 논의할 때에 응교 柳成龍이 좌상 盧守愼을 찾아갔는데, 노수신이 말하기를, “이 판서는 이름난 宰臣으로 南征(을묘왜변을 진압한 일) 때에 공이 있고 또 한편으로 淸德이 높으니 응당 아름다운 시호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류성룡이 懿肅, 翼莊, 懿度로 三望을 갖추어서 의정부에 보

12) 1610년(광해군 2) 3월 7일, 대신과 육조가 賓廳에 모여, 宣祖廟에 배향할 명신을 의논 결정하여 李浚慶과 李滉을 제1로 삼고, 盧守愼과 柳成龍을 제2로 삼아 의논을 드렸다. 이에 광해군은 노수신과 류성룡이 선조 때 始終을 보전하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廟庭에 배향하는 것은 미안하다며 기각하고 이준경과 이황만을 배향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13) 禹性傳, 『秋淵日記』 갑신 5월 24일 조 참조. 이 일기에 의하면 선조가 류성룡의 처리 문제를 두고 고민할 때, 노수신은 “엄하고 분명하면서도 어질고 너그럽게 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고하였는데, 수상 朴淳이 合坐하여 勘定해서 아뢰는 때에 시호가 그의 실질을 극진히 표현하지 못하였다 하여 되돌려 보냄으로써 正獻으로 시호를 고쳤다.¹⁴⁾

노수신은 류성룡의 아버지 류중영과 나이가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서울에서 서로 교유하면서 깊은 친교를 맺었고, 1553년(명종 8)에는 류중영이 노수신의 진도 적소를 방문해 위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류성룡은 아버지의 벗인 노수신을 특별히 존경하였고, 노수신 역시 류성룡에게 각별하였다. 이러한 관계는 조정에서도 지속되어,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응교 류성룡이 좌상 노수신을 찾아가 이윤경의 시호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류성룡은 노수신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자 했다. 우리는 여기서 노수신과 류성룡이 사상적·정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일련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위와 같이 노수신과 류성룡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명학에 대한 인식의 태도 및 이와 관련된 경세론에 있어서는 사뭇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이 다소의 시차를 두고 살았고, 정치적 시련이 달랐으므로 실천에 대한 서로 다른 상황이 조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노수신과 류성룡의 양명학에 대한 입장과 경세론,¹⁵⁾ 그리고 그 경세론에 따른 실천 양상과 그 의의를 순서대로 따지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수신과 류성룡의 양명

14) 李裕元, 『林下筆記』 권16, <美諡之論>, “判書李潤慶議諡時, 應教柳成龍, 歷拜左相盧守愼, 守愼曰, 李判書, 是有名宰臣, 南征時有功, 且多清德, 須以美諡, 諡之, 成龍乃以懿肅翼莊懿度備望, 報于政府, 首相朴淳, 合坐勘啓時, 謂諡號, 未盡其實, 還下, 改諡正獻.”

15) 노수신의 경세론은 신항림, 「盧守愼의 초기 사상과 경세론」, 『泰東古典研究』 2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9가 유일하고, 류성룡의 경세론은 최중호, 「柳成龍의 經學觀과 經世思想의 特徵」, 『泰東古典研究』 2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2; 연세대학교 서애학술연구단(김왕배 외), 『서애 경세론의 현대적 조망』, 해안, 2016 등에서 다양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로 시를 통해 양명학적 사유를 나타냈던 노수신에 대한 경세론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노수신 경세론을 따질 수 있는 자료를 문집 외에서 찾고, 기존의 류성룡 경세론에 대한 연구 결과는 충분히 활용하기로 한다.

학에 대한 입장과 그 실천 양상의 동이성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한국 사상사 이해의 폭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II. 格致에 대한 입장과 양명학

유학은 자신의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중시했다. 이민족의 침입 하에 구성된 주자학 역시 당시 한족의 사상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의 일환이었다. 정통성에 관한 논쟁은 도교와 불교 등 유학 외부와 이루어지기도 하고, 程朱理學과 陽明心學처럼 유학 내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조선 유학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논쟁을 벌이면서 요순 이래의 정통성을 확보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자 했다. 무엇보다도 이황이 여기에 철저하였고, 이에 따라 주자 근본주의라는 유학 전통을 조선 사상사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노수신과 류성룡은 지역, 친분, 정치, 사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일정한 공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상적 측면에서 이들은 양명학에 대해 깊이 공감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노수신은 29세의 류성룡을 한강에서 전송하면서, <漢江送柳而見>이라는 양명학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 한수를 지어 주었다. 당시 류성룡이 주자학과는 다른 양명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 터인데, 노수신으로서는 자신의 생각을 지지하는 중요한 학문적 동지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당시의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欲者人之性	욕심이란 사람의 본성이니
人皆不可無	사람마다 없을 수 없는 것이라네
何修能入道	어떻게 닦으면 도에 들어갈 수 있을까
吾老竟歸愚	내 늙어 마침내 어리석어지고 말았구나
病眼三年淚	병든 눈으로 삼 년 동안 눈물 흘렸나니
離懷八月湖	이별의 회포는 팔월의 호수와 같네
幾人曾此論	몇 사람이 일찍이 이런 의논하였던고

今日更長吁 오늘 다시 길이 탄식하노라¹⁶⁾

양명학의 욕망긍정설에 기반한 노수신의 이 시가 알려지자, 이황은 “높디높은 주자의 산악에 도도하게 흐르는 욕상산의 海湖.”¹⁷⁾라 하였고, 기대승은 수련을 들어 “이 말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쓸데없는 말 서로 현혹될까 두렵도다.”¹⁸⁾라면서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은 李堧(1560~1635)과 李象靖(1710~1781)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로 이어졌다.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성룡은 노수신으로부터 이 시를 받아 손수 써서 소중히 보관하는 등²⁰⁾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이보다 앞서 류성룡은 17세 되던 해인 1558년(명종 13), 아버지 류중영을 따라 義州로 갔다가 사은사 沈通源이 압록강변에 버린 짐짝에서 『양명집』을 발견하고, 그것을 글씨 잘 쓰는 아전에게 베끼게 하여 상자 속에 보관해 두었다. 그리고 <書陽明集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임진년 7월에 왜구가 안동에 들어와 옛집과 원지정사를 불사르니, 집에 간직해 두었던 서적은 모두 없어졌는데, 오직 이 몇 권만이 수풀 사이에 있어 온전하였다. 내가 그것을 다시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슬프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행장과 함께 가지고 제천에 도착하여 사실의 대강을 적어 자제로 하여금 잘 보존하여 다시

16) 奇大升, 『高峰續集』 권1, <次蘇齋韻> 附 <漢江送柳而見>. 盧守愼, 『蘇齋集』 권6에는 <贈柳修撰成龍>으로 되어 있고, 함련의 ‘何修能入道’가 ‘何修以入道’로 되어 있는 등 약간의 출입이 있다.

17) 李滉, 『退溪續內集』 권5, <病中, 偶記前日無字韻和句, 錄呈存齋>, “邈邈朱山嶽, 滔滔陸海湖.”

18) 奇大升, 『高峰續集』 권1, <次蘇齋韻>, “斯言何所出, 剩語恐相愚.”

19) 정경세는 “어찌 소재와 같은 학문을 가지고서性を 모를 리가 있었겠는가. 이는 필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지은 것이다.”(『愚伏別集』 권8, <言行錄>)라고 하면서 노수신을 위해 변명을 하기도 했다.

20) 柳軫, 『修巖集』 권2, <答鄭愚伏> 참조. 당시 노수신이 성악설을 주장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경세가 류진에게 묻자, 류진은 노수신이 류성룡에게 준 시에서 “欲者人之性, 人皆不可無.”라는 구절이 와전되어 그렇게 소문이 난 것이라 해명하였다. 노수신이 아버지 류성룡에게 준 이 시를 류진은 서울에 소재한 徐仁元의 집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아버지 류성룡이 손수 써서 책을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 속에 노수신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준 시가 있었다고 했다.

는 유실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다.²¹⁾

1593년(선조 26) 9월 8일에 쓴 것이니 그가 51세 되던 해였다. 류성룡 스스로가 밝히고 있듯이 35년 전 그가 처음 『양명집』을 접했을 때는 아직 양명의 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이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아버지 류중영에게 아뢰 뒤, 베껴서 보관하게 되었던 것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다른 서적은 사라졌지만 『양명집』이 남아 있음을 보고 옛날의 기억을 더듬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리고 발문을 써서 자체로 하여금 잘 보존하여 다시는 유실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다. 30세를 전후해서 양명학을 비판적 자세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양명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만년에도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류성룡은 김우옹 등으로부터 禪學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²²⁾

주자학과 양명학은 모두 성리학이지만, 주지하듯이 『대학』의 格物致知의 해석에서 이 두 학문은 중요한 분기점을 이룬다. 주자학에서는 格物을 ‘사물에 이른다’, ‘치지’를 ‘앎을 이룬다’로 해석하는 데 비해, 양명학에서는 격물을 ‘마음을 바로잡는다’, ‘치지’를 ‘良知를 이룬다’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주자학이 卽物窮理를 기반으로 한 주지주의적 성격이 강한 반면, 양명학은 致良知를 기반으로 한 簡明直截한 선가의 돈오적 성격을 내포할 수 있었다.

노수신의 만년설은 주자의 격치설을 부정하는 입장에 있었다. 그러나 만년과는 달리 귀양을 가기 전 조정에서 활동할 당시에는 주자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³⁾ 朝講에서 『書經』 「太甲」의

21) 柳成龍, 『西厓集』 권18, <書陽明集後>, “壬辰秋七月, 倭寇入安東, 焚先廬及遠志精舍, 家藏文籍, 蕩然一空, 惟此數卷, 獨全於林薄間. 余得復見之, 不覺泫然以悲, 挾與俱行, 到堤川, 略記梗槩, 俾子弟寶蓄之, 毋更遺失云爾.”

22) 여기에 대하여 류성룡은 禪學에 대한 경계가 옳은 말씀이긴 하나, “心神으로 깨달은 장점은 스스로 감출 수가 없으므로 전현 역시 취하였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벗들 사이에서도 나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빈번히 선학으로 비방하는 것을 늘 웃어 넘겼더니 뜻밖에도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군요.”라고 하면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柳成龍, 『西厓集』 권11, <答金肅夫>에 자세하다.

23) 이에 대해서는 신항림, 「노수신의 초기 사상과 경세론」, 『태동고전연구』 25, 한림대

‘欽厥止’의 ‘지’를 『대학』의 ‘止於至善’의 ‘지’로 인식하면서 지선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格物이 誠意 앞에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서, “마땅히 머물러야 할 곳을 알지 못한다면, 비록 입으로는 지선에 머물러 옮겨가지 않는다고 말하더라도 머무는 곳은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닌 것입니다.”²⁴⁾라고 한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유배생활을 하면서²⁵⁾ 이 같은 그의 생각은 스스로 부정되고 尊德性 위주의 心學으로 기울게 된다. 다음 시에 이러한 생각이 분명히 나타난다.

傳註留情負象山	傳注에 유의하느라 상산을 저버렸나니
十年說話摠成閑	십 년의 공부가 모두 부질없게 되고 말았네
憑君眼著鵝湖辨	당부하노니 그대, 아호의 논변을 눈여겨 보소
詎喚澄源做兩般	어찌 본원 맑게 하는 것을 두 갈래로 하겠소 ²⁶⁾

조광조의 문인 白仁傑(1497~1579)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기구의 ‘전주’는 경서에 대한 해석을 세밀하게 하는 것이니, 욕왕학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상산을 저버렸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더욱 분명히 하였다. 전구에서는 鵝湖寺에서 벌인 주희와 욕구연의 논변을 제시하였는데, 당시 주자는 ‘도문학’을 강조하였고, 욕구연은 ‘존덕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禪學과 支離로 서로를 비판하게 된다. 노수신은 이 아호사의 논변을 염두에 두면서, 한편으로 지리한 전주를 비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존덕성을 통해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선한 본성을 존송해야 한다고 했다.²⁷⁾ 그의 욕왕학적 면모를 바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9에서 논의되었다.

24) 盧守愼, 『穌齋內集』 上篇, 「侍講錄」 1, “然, 不知所當止, 則雖口能止不遷, 而止非其止矣.”

25) 노수신은 33세에 순천을 거쳐 19년의 진도 귀양살이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그의 세계관은 전변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왕수인이 36세 때 중앙 정부의 부패와 맞서 싸우다가 龍場으로 귀양 가서 깨달은 ‘용장의 悟道’와 비견될 만하다.

26) 盧守愼, 『穌齋集』 권1, <思勁詩軸, 讀休菴所賜次韻, 慨然有感, 輒復和題>

27) 노수신이 敬概念을 중심으로 자기 수양에 매진한 것도 존덕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

류성룡의 경우,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했다. 그는 59세에 『대학』의 격물치지를 특별히 중시하여 <讀大學有感>이라는 시 10수를 지었다.²⁸⁾ 1600년(선조 33) 10월 19일 밤, 『대학』의 격물치지설을 생각하다가 홀연히 깨닫는 바가 있어 다음날 아침에 이 시를 짓는다고 했다. 그는 여기서, “대학의 참된 공효는 하나의 明에 있나니, 八條目的 자세한 설명은 닦는 행위라네. 모름지기 格致가 모두 心法이라는 것을 알아, 묵은 책에서 헛되이 앎을 찾지 말아야 하리.”²⁹⁾라고 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 격물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며, 치지가 良知의 발현이라는 양명학적 분위기를 감지하게 된다. 앎을 묵은 책에서 찾지 말라고 한 발언은 더욱 그러하다. 다음 작품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知從何起起在心	앎이 어디에서 생기는가, 그것은 마음에서 생기니
致到窮時力更深	궁극에 이르렀을 때 더욱 힘써야 하네
室中有寶人不識	방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一燭明處總能尋	촛불 하나 밝은 곳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네 ³⁰⁾

<讀大學有感>의 여섯 번째 시이다. 여기서 류성룡은 앎[知]이 사물에 나아가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心’에서 생기는 것이라 했다. ‘室中有寶[전구]’나 ‘一燭明處[결구]’는 모두 마음[心]을 강조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元明 이후로 학술은 더욱 분열되었다. 道問

다. 1547년(33세) 순천을 거쳐 진도에 유배를 가게 되고, 37세에 진백의 <興夜寐箴>을 주해하게 된 것도 ‘경’에 바탕한 존덕성 공부를 위한 것이었다.

28) 류성룡은 이언적과 노수신이 『대학』의 격물치지 보망전에 대해서 입장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大學章句補遺>(『서애집』 권15)에서, “『대학』에는 격물치지의章이 없는데, 주자가 程子の 뜻으로 보충하였다. …… 우리나라 晦齋의 견해도 왕백·방효유와 같되, 다만 ‘물에 본말이 있다는 것’을 ‘그칠 데를 안다.’의 앞에 두었으니, 근세의 穌齋는 이를 탁견이라 하였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29) 柳成龍, 『西厓集』 권2, <讀大學有感十首·其一>, “大學眞功在一明, 八條詳說是修爲. 須知格致皆心法, 莫向陳編枉索知.” 류성룡은 그 연장선상에서 <格物說>을 써서, “격물치지가 비록 講習하고 討論하는 일이지만, 성의와 정심이 이미 그 가운데 있다.”라고 했다.

30) 柳成龍, 『西厓集』 권2, <讀大學有感十首·其六>

學을 주장하는 자를 주자학이라 하고, 尊德性을 주장하는 자를 육왕학이라 한다. 서로 시끄럽게 다투며 논변하는 것이 못사람이 모여서 소송하는 것과 같다. 이로써 세도는 날마다 떨어지고 인심은 날마다 무너지게 되었으니,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를 모르겠다.”³¹⁾라고 하면서 존덕성과 도문학을 함께 강조했다. 이로써 우리는 류성룡이 주자학의 입장에서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사정을 알게 된다.³²⁾

노수신이 존덕성으로 일원화하면서 심을 더욱 강조하였다면, 류성룡은 도문학을 중시하면서도 존덕성을 경시하지 않았다. 이는 노수신이 더 양명학적이라면, 류성룡은 주자학에 기반하여 양명학을 수용한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수신과 류성룡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자학과 양명학 수용이 서로 어긋나 있다. 노수신이 ‘주자학→양명학’이었다면, 류성룡은 ‘양명학→주자학’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단선적으로 본 것이지만 주자학적 바탕 위에서 양명학의 수용과 비판은 대체로 이러한 맥락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지행의 문제도 공통의 관심사였지만 이들의 생각은 서로 달랐다. 노수신이 “지와 행은 두 가지의 일이 아닌데 주자가 분별하여 말을 했고, 세상의 유자들이 관연하게 두 가지 일로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³³⁾라면서 知行合一을 강조한 데 비해, 류성룡은 “성현의 학문은 비록 행을 중시하지만 知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 비록 행을 독실하게 할지라도 지가 지극하지 않으면 익힌 것이 몸에 익숙해지지 않고, 행동이 분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³⁴⁾라며 先知後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31) 柳成龍, 『西厓集』 권14, <策問 三首>, “元明以後學術益裂, 其主於道問學者, 謂之朱學, 其主於尊德性者, 謂之陸學, 嘖嘖爭辨, 有若聚訟, 以此世道日下, 人心日壞, 未知何者爲得, 而何者爲失耶.”

32) 류성룡은 양명학의 良知說과 知行合一說 모두를 비판적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 <王陽明以良知爲學>(『西厓集』 권15)과 <知行合一說>(『西厓集』 권15)에 이러한 생각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33) 『선조실록』 권8, 1574년(선조 7) 4월 28일 조, “盧守愼曰, 知行不至二事, 而朱子分辨言之, 世儒以爲判然二事, 此未穩也.”

34) 柳成龍, 『西厓集』 권15, <知行說>, “聖賢之學, 雖重於行, 而尤以知爲貴, 雖篤行而知未至, 則未免爲習不著行不察.”

러나 왕양명의 지행합일설에 대하여 류성룡은 “왕씨의 의도는 아마도 속된 학문이 밖으로만 치닫는 것을 경계하여, 이에 한결같이 본심을 위주로 하여 무릇 마음을 붙여서 강구하는 것을 모두 행이라 하였다.”³⁵⁾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왕양명의 입장에서 그의 설을 이해하고자 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이 조선 사상사는 유학 내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자학과 양명학 사이에서 논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주자 성리학이 주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상사적 흐름 속에서 노수신과 류성룡은 농도를 서로 달리하였지만 양명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했다. 노수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자학적 바탕 위에서 ‘주자학→양명학’의 입장을, 류성룡은 ‘양명학→주자학’의 입장을 취하였는데, 상대적으로 볼 때 노수신이 존덕성 위주의 양명심학에 더욱 경사되어 있었다면, 류성룡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공히 중시하면서도 도문학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지행의 문제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어, 이 둘의 양명학적 입장의 차이가 지행의 인식에 대한 차이로 드러난 것임을 알 수 있다.

Ⅲ. 경세론과 그 실천의 문제

노수신과 류성룡은 시기를 달리하지만 내외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모두 영의정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로써 이들의 經世濟民에 대한 생각은 남달랐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당연히 이들의 학문적 성과는 자신의 학문세계로만 고립되지 않았다. 즉, 노수신과 류성룡의 학문은 세상을 경영하는 데 소용될 필요가 있었으며, 또한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세계에

35) 柳成龍, 『西厓集』 권15, <知行合一說>, “詳王氏之意, 盖懲俗學之外馳, 於是一以本心爲主, 凡所着心講求者, 皆以爲行.” 류성룡은 왕양명의 지행합일설을 두고, 그가 外馳를 비판하며 本心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은,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바른 것에 지나친 것[矯枉而過直]이라고 보았다.

대한 인식이 이들 학문사상의 방향을 결정하였을 것이며, 또한 이들이 구축한 학문은 국가 경영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양명학적 입장을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노수신이 주자학적 격치를 부정하면서 존덕성에 경도된 지행합일적 입장을 견지하였다면, 류성룡은 양명학에 일정한 영향을 받으면서도 선지 후행의 주자학적 지행론을 중시했고, 존덕성을 본체로 하면서도 도문학 역시 경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측면에서 공감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사상체계에는 이질성 역시 존재하였다. 류성룡이 주자의 『대학』 보망장에 대한 견해에서 노수신과 길을 달리 하였던 것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를 고려하면서, 본 장에서는 노수신과 류성룡의 경세론과 그 실천의 문제를 따져보기로 한다.

먼저 노수신과 류성룡의 경세론에 대해서다. 일찍이 의주 목사 徐益(1542~1587)은 鄭汝立(1546~1589)의 처신과 노수신의 사적을 비판하면서 상소한 적이 있었다. 이때 그는 “노수신은 經世濟民의 학술을 쌓았고 喬岳 같은 衆望을 지니고 있는 데다 몸은 성명의 은혜를 입어 깊이 廟堂에 올라 있으니, 士林을 합일시키고 조정을 화하게 하여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적을 높이는 것이 그의 마음이요 직분이었습니다.”³⁶⁾라고 하였다. 노수신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지만, 오히려 그의 경세제민의 학술은 크게 인정하였던 것이다. 노수신의 경세론은 귀양 이전에는 경연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격물치지가 그 바탕이 되었는데 다음 자료를 보자.

臣은 말했다. “함양은 모름지기 敬으로 해야 하고 학문에 나아감은 앎을 극진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하였으니, 致知를 먼저 하지 않는다면 다시 무엇을 함양하겠습니까? 主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致知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尹玉이 물었다. “致知의 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臣은 대답했다. “독서하여 의리를 밝히고, 사우들과 시비를 분별하며 풀 한 포기, 먼지 하나의 미세한 것에 이르기까지 天人性命

36) 『宣祖實錄』 권19, 1585년(선조 18) 5월 28일 조, “盧守愼, 蘊經濟之學, 負喬岳之望, 身值聖明, 深居廟堂, 一士林和朝廷, 安國家尊社稷, 乃其心也, 乃其職也.”

의 오묘한 이치를 탐구하지 앎이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³⁷⁾

서연강의에서 『서경』의 「태감」편을 읽으며 나는 대화이다. 이 강의에 참여한 사람은 노수신을 비롯하여 權機, 韓岬, 慶渾, 尹玉이었다. 노수신은 여기서 敬과 仁과 誠이 하나의 理라고 하면서 心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서도, 致知는 독서를 통해 의리를 밝히고, 사우들과 시비를 분별하며, 풀한 포기, 먼지 하나까지 탐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시 그의 경세적 자세가 어떠하였는가 하는 부분을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사물에 나아가 시비를 가려야 한다는 이러한 태도에는, 군주가 마땅히 군자와 소인을 변별하여야 하며, 조정에는 군자가 마땅한 소임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³⁸⁾ 경세론적 측면에서 원론에 충실한 면을 보인 것이라 하겠다.

류성룡의 경우,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행이 서로 분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침내 지는 스스로 지이고 행은 스스로 행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누군가 그에게 그의 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왕양명과 같지 않는가?’라고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셈이다. 류성룡은 지를 행보다 중시하였지만, 學과 思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를 우선하였다. 그가 <學以思爲主>에서, “성현의 학문은 오로지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口耳之學이니, 비록 많다 하더라도 무엇을 하겠는가.”³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구이지학의 대극점에 실용 내지 실천이 있다고 볼 때, 그의 ‘思爲主’의 태도는 현실주의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다음 자료를 보자.

37) 盧守愼, 『穌齋內集』 上篇, 「侍講錄」 1, “臣曰, 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 不先致知, 則更涵養何物, 故欲主敬者, 必須致知爲務. 玉問, 致知之道何如? 臣曰, 讀書以講明義理, 師友以分別是非, 至於一草一塵之微, 天人性命之奧, 無所不當究者, 是也.”

38) 盧守愼, 『穌齋內集』 上篇, 「侍講錄」 1, “又因君子小人之說而言曰, 人君之好惡而下隨之, 故必先使好惡明白, 然後可以辨矣. 所以中庸, 明善居誠身之前, 大學, 誠意在格物之後.”

39) 柳成龍, 『西厓集』 권15, <學以思爲主>, “聖賢之學, 專以思爲主, 非思則口耳之學, 雖多奚爲?”

무릇 제왕의 학문은 경륜을 귀하게 생각하므로 반드시 본말을 함께 다루어야 하며 체용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안으로는 身心과 性情의 미묘한 것에서부터 밖으로는 정책과 행정 사이에 이르기까지 순서와 조리가 맞아, 정밀한 것과 거친 것, 큰 일과 작은 일에 있어 어느 하나도 관통하지 않음이 없어서, 큰 경우는 천하를 경륜하고 작은 것은 추후와 같은 것에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그 연후에 바야흐로 본체를 밝히고 응용에 적합한 학문[明體適用之學]이 되어 체는 있지만 용이 없다는 기룡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⁴⁰⁾

위의 글에서 우리는 류성룡의 경세론을 바로 알 수 있다. 이를 그는 제왕학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본과 말, 체와 용, 身心性情과 政事施措, 精과 粗, 巨와 細 등에 일관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本·體·身心性情·精·巨가 존덕성과 밀착되어 있다면, 末·用·政事施措·粗·細는 도문학과 연관성을 지닌다. 이 둘을 온전히 하는 것이야말로, 경세론의 핵심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류성룡은 ‘明體適用之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류성룡은 格物致知가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도를 알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경세론이 자기 수양과 함께 치국과 평천하에 이르는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노수신과 류성룡의 경세론에 대한 실천 문제이다. 노수신과 류성룡은 심의 주재를 매우 강조하였다. 이는 사변적 형이상학적 측면보다 실천적 현실주의적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존덕성을 더욱 강조한 노수신의 경우부터 보자. 노수신이 처음 대과에 급제하여 득의한 신진기어로 활동할 때, 그는 수구세력의 표적이 되었다. 그의 개혁의지 때문이었다. 이후 19년이라는 긴 진도 유배기를 거치면서 양명학적 사유에 입각한 자기성찰을 새롭게 하였고, 해배되어 조정으로 복귀하여서는 영의정까지

40) 柳成龍, 『西厓集』 권8, <柳祖初上疏回啓>, “若夫帝王之學, 貴於經綸, 必須本末兼舉, 體用該備, 內自心神性情之微, 外及政事施措之間, 循序條達, 精粗巨細, 無一不貫, 大則經綸六合, 小則密勿秋毫, 然後方爲明體適用之學, 而不歸於有體無用之譏.”

41) 柳成龍, 『西厓全書』 II-1, <格物說>, “大學之格致, 無他道, 不過欲知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道而已.”

오르게 된다. 당시 그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군주의立志를 들었고, 이어 개혁적인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경세론이 작동한 까닭이다. 다음 자료를 보자.

① 홍문관 부제학 盧守愼, 직제학 金鸞祥, 전한 閔起文, 응교 柳希春, 교리 黃廷或, 수찬 宋應漑·申湛, 저작 趙廷機 등이 6조목을 상소하였다. 첫째는 뜻을 세울 것 [立志], 둘째는 집을 다스려 가지런하게 할 것 [齊家], 셋째는 정통을 높일 것 [尊正統], 넷째는 조정을 바르게 할 것 [正朝廷], 다섯째는 시비를 바르게 할 것 [正是非], 여섯째는 음사를 금할 것 [禁淫祀] 등이었다.⁴²⁾

② 상이 물었다. “하늘의 재변이 극심하고 민생은 곤궁한데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대답했다. “반드시 賢才를 얻어야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상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현재를 얻겠는가?” 대답했다. “지성으로 구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⁴³⁾

노수신은 1567년(명종 22) 6월, 이준경 등의 계청으로 을사사화로 유배되었던 柳希春(1513~1577) 등과 함께 해배되어 홍문관 교리로 복관했다. 53세 때의 일이었다. 위의 ①은 1568년(선조 1) 7월 12일 당시 노수신이 김난상 등과 함께 막 등극한 선조에게 올린 6조목의 일부이다. 이 가운데서도 그는 군주의 입지를 강조했다. 나아가 <請先立志疏>를 독자적으로 지어 올리기도 했다. 그의 개혁의지는 안으로 을사사화를 주도한 이들에 대한 공훈을 삭제하고, 밖으로 굶주린 백성의 구휼, 요역 문제 등으로 확대되기도 했다.⁴⁴⁾ 이로써 그는 군주의 입지와 함께 역사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당면한 현실과제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42) 『宣祖實錄』 권2, 1568년(선조 1) 7월 12일 조, “弘文館副提學盧守愼·直提學金鸞祥·典翰閔起文·應教柳希春·校理黃廷或·修撰宋應漑·申湛·著作趙廷機等上疏六條, 一曰立志, 二曰齊家, 三曰尊正統, 四曰正朝廷, 五曰定是非, 六曰禁淫祀.”

43) 『宣祖修正實錄』 권8, 1574년(선조 7) 2월 1일 조, “上問曰, 天變孔棘, 民生困苦, 何以爲治? 對曰, 必得賢才, 可治. 上曰, 何以得賢? 對曰, 至誠求之, 可得也.”

44) 조성을, 「소재 노수신(盧守愼)의 정치활동과 정치관」,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 참조.

노수신은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賢才의 등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1574년(선조 7) 2월 1일에 올린 자료 ②에 이러한 생각이 잘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는 1584년(선조 17) 11월에 李潑·金宇顥·金弘敏·韓準·白惟讓·尹先覺·金晬·鄭汝立 등을 추천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建白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노수신은 적극적인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여러 번 사직서를 제출하며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자 했다.⁴⁵⁾ 이 때문에 최영경으로부터 “노 정승의 침은 종기를 치료하는 데나 적당할 것이다.”⁴⁶⁾라며 기롱받기도 했고, 그가 좋아하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벼슬을 제수하였다는 편증인사에 대하여 비판받기도 하였다.⁴⁷⁾ 마침내 정여립 역모사건의 주동자인 정여립 등을 추천하였다는 이유로 파직에 이르게 된다. 당시 선조는 “이 추천서를 보니 나도 모르게 머리털이 곤두선다. 예로부터 이런 대신이 있었던가.”⁴⁸⁾라 하기도 했다.

존덕성과 도문학을 함께 강조한 류성룡의 경우, 그의 경세론에 입각한 실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었다. 임진왜란기의 국정 운영이라는 특수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다. 류성룡은 治世와 亂世는 실천의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성인은 때에 따라 그 대응을 달리 해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를 堯舜의 정치와 禹稷의 정치로 구체화시켰

45) 이러한 사실은 1574년(선조 7) 2월 1일에 이이와 선조 사이의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근일 상계서 盧守愼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데도 수신이 사퇴하겠다고 하니, 이 또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신은 젊어서부터 善名이 있었는데, 재상이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상이 된다면 태평을 기대할 수 있다’고들 하였습니니다. 그러나 막상 재상으로 앉게 되어서는 별달리 建明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은 모두 그가 제대로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수신이 건백하고 싶어도 성상의 뜻이 원하지 아니하여 진퇴가 다 낭패스러웠으므로, 이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46) 尹宜舉, 『混定編錄』 권1, “守愼, 少時以言事被謫, 有直聲, 及還朝爲相, 無一建白. 崔永慶謂人曰, 盧政丞之唾, 可用於治腫, 人問其由. 永慶曰, 未言前唾, 於治腫極良云, 蓋譏之也.”

47) 『宣祖實錄』 권22, 1588년(선조 21) 1월 5일 조 참조.

48) 『宣祖實錄』 권24, 1590년(선조 23) 3월 18일 조, “披見此薦, 不覺髮豎. 自古有如此大臣乎?”

다. “요순이 의상을 드리우고 천하를 다스렸다면, 우직은 그 문을 세 번 지나갔으나 들어가지 않았고 손발에 굳은살이 박히기에 이르렀다. 이는 만난 때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⁴⁹⁾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다음 자료를 보자.

우리가 만약 평탄한 광야에서 서로 만나 두 진이 상대하여 戰法대로 교전을 하였다면, 적을 당해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대개 화살의 능력은 백 보에 불과하지만, 조총은 능히 수백 보까지 미치고 날아오는 것이 바람과 우박 같으니, 그것을 능히 당해낼 수가 없음은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지형을 먼저 선택하여 산이 험준하고 숲이 뺏뺏한 곳에 사수를 분산·매복시켜 적군에게 그 형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좌우에서 한꺼번에 쏘았다라면, 저들이 비록 조총과 창칼이 있더라도 모두 소용이 없게 되어 크게 승리하였을 것이다.⁵⁰⁾

류성룡은 임진왜란을 맞아 전시 책임자로서 직책을 수행하였다. 『징비록』은 임란이 끝난 다음 전쟁 처리의 잘못을 통감하고 국가에 사죄하는 뜻으로 서술한 것이다. 위의 서술은 이에 대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弓矢를 주로 사용하는 조선군의 열악한 전력으로 조총을 사용하는 왜군을 맞아 對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1594년(선조 27)에 쓴 <戰守機宜十條>에도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 글에서 그는 斥候, 長短[피아의 장단점], 東伍[부대의 체계], 約束[상하의 명령체계], 重壕[겹참호], 設柵, 守灘, 守城, 迭射, 統論形勢를 거론하면서 군사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였다.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경향도 있지만, 이것은 류성룡의 도문학에 바탕한 존덕성의 경세론에 입각한 실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실천은 경제정책의 방면에서 안민부국론, 국가체

49) 柳成龍, 『西厓集』 권8, <柳祖初上疏回啓>, “堯舜垂衣裳而天下治, 禹稷三過其門而不入, 手足至於胼胝, 所遇之時異也.”

50) 柳成龍, 『懲忠錄』, 「錄後雜記」, “我若相遇於平原廣野, 兩陣相對, 以法交戰, 則敵之極難, 蓋弓矢之技, 不過百步, 而鳥銃能及於數百步, 來如風雹, 其不能當必矣. 然先擇地形, 得其山陬險阻, 林木茂密處, 散伏射手, 使賊不見其形, 而左右俱發, 則彼雖有鳥銃槍刀, 皆無所施, 而可大勝也.”

제의 개혁론, 중상주의의 지향 등⁵¹⁾으로 구체화되었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중앙 군사제도의 개편과 지방 국방체제의 강화를 근간으로, 군사조직, 군사 기강은 물론이고, 군량 확보나 산성 수축 등 매우 세밀한 부분까지 영향을 미쳤다.⁵²⁾ 복인 측에서 쓴 『선조실록』에 “崔永慶의 원통함을 알고도 정철의 뜻을 거스를까 두려워하여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은 채 구원하지 않았으므로 공론이 그를 배척하였다.”⁵³⁾라고 하는 등의 비판이 없지 않으나, 그는 오랫동안 再造山河를 이룬 재상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보듯이 노수신과 류성룡은 모두 자신의 경제론에 입각하여 그들이 만난 시대에 응전한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은 관료생활을 하던 초반에는 주자학적 경제론을 견지하였다. 해배 이후 존덕성 위주의 양명학으로 사상적 전환을 시도하면서도 정치적인 개혁에 힘썼으며, 그의 말이 선조에게 제대로 가납되지 않자 정여립 등 개혁적 인재를 영입하며 그의 소임을 다하고자 했다. 이에 비해 류성룡은 존덕성과 도문학을 함께 강조하면서 주자학적 경제론에 입각하여 매우 구체적인 세무를 수행하였다. 임진왜란이라는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격물치지를 통한 상황분석과 이에 따른 실천을 감행함으로써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IV. 노수신과 류성룡 경제론의 의의

일찍이 노수신은 ‘문자로 마음을 깨치려 하지만 이미 아는 것을 익힐 줄 모르면, 어찌 지금이 옳은 줄을 알겠는가’라고 하면서 도는 따로 실

51) 이현창,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148~160쪽 참조.

52)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208~224쪽 참조.

53) 『宣祖實錄』 권114, 1599년(선조 32) 6월 9일, “知崔永慶之冤, 而恐忤澈志, 不肯出一言以救, 公論斥之.”

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한 바 있다.⁵⁴⁾ 도는 책이나 외부 사물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하니 존덕성에 힘쓰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류성룡은 이러한 노수신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양명집』을 읽고 나서 지은 시에 쓴 서문에서, “만약 책을 버리고 눈을 감고 방에 앉아서 다만 본심의良知만 일삼는다면 한때의 응결된 힘은 다소 얻어지는 듯하겠지만, 이른바 威儀三千과 禮儀三百을 행하고, 광대함을 이루고 정미함을 다하는 것에 있어서는 성인과 같아질 수가 없다.”⁵⁵⁾라고 하였던 것이다. 도문학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더욱 나아가 學과 思 가운데 思爲主의 존덕성을 다시 강조하면서 실천적 측면도 부각시켰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두 사람의 경세론과 그 실천이 갖는 의의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첫째, 주자주의 일변도로 치닫는 조선 사상계에 일정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조선의 사상사가 주자학 중심주의였다는 것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조광조, 이황, 송시열을 거치면서 이 사상은 교조성을 띠면서 경화되어 갔다. 그러나 이러한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이 계열의 담론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끊임없이 사고의 폭을 확대한 비주류 사상가들이 있었다. 이는 양명학과 노장학으로 대표되는 인물이었는데, 양명학의 경우 노수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류성룡 역시 주자학을 중심에 두면서도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고, 이를 통해 그의 실천정신을 가다듬어 갈 수 있었다.

16세기 조선에서는 이황과 노수신이 주자학과 양명학을 두고 유학 내적 논란을 벌였다. 노수신이 양명학에 공감하는 류성룡에게 ‘육망은 본성’이라 하자, 이황은 “높디높은 주자의 산악에, 도도하게 역류하고 있는 육상산의 바다와 호수”라며 비판하고, 노수신에게 주자의 정학으로 돌아

54) 노수신의 이러한 생각은 <復次韻示友>(『소재집』 권5)에 잘 나타나 있다. “學只在爲己, 功須先謹陰. 精微任着意, 文字轉開心. 不卽知溫古, 何緣覺是今. 道終無別體, 人各有幽襟.”

55) 柳成龍, 『西厓集』 권2, <讀陽明集有感>, “若捐去書冊. 瞑目一室, 但事於本心良知之間, 則雖一時凝定之力稍若有得, 而所謂三千三百, 致廣大盡精微者, 終不能如聖人矣.”

오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노수신은 “가르쳐주시는 덕성은 참으로 훌륭하지만, 변화하기 어려운 곧어 바다 속에 있네.”⁵⁶⁾라고 하면서 그 권고를 정중히 거절한다.⁵⁷⁾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황의 제자 류성룡 역시 양명학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그렇다고 하여 류성룡이 양명학에 대한 애정을 완전히 접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노수신의 양명학적 사유와 류성룡의 비판적 수용은 조선의 성리학사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둘째, 양명학적 사유의 시대적 응전과 그 결과를 비교적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지행의 문제에 있어 노수신은 지와 행을 하나로 보았고, 류성룡은 이 둘을 분리하여 지는 지이고 행은 행으로 보았다. 이처럼 지행 합일과 선지후행을 차별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류성룡의 경우 왕양명이 밖으로만 치닫는 속학을 강하게 경계하기 위해 이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서 양명학적 입장에서 이를 이해하고자 했다. 류성룡의 이러한 태도는 그의 사상적 근저를 주자학에 두면서도 양명학을 일정하게 수용함으로써 경세론에 있어 실천적·현실주의적 성격을 띠게 하였다.

노수신의 경우, 스스로의 건백이 이루어지지 않자, 강한 개혁적 성향을 지닌 인사를 대거 추천했다. 이발, 최영경, 정여립 등이 바로 그들이다. 정여립의 경우, 동서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난을 일으켰고, 기축옥사(1589년, 선조 22)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다.⁵⁸⁾ 그러나 임진왜란을 맞은 류성룡은 주자학에 기반하되 양명학을 수용하면서 투철한 현실적 세무와 함께 강력한 실천 역량을 발휘하였다. 이는 노수신과 류성룡의 시대가 달랐고, 또한 이에 대한 서로 다른 응전의 결과라

56) 盧守愼, 『蘇齋集』 권4, <寄退溪先生>, “熏陶德性好, 難化有沈鯤.”

57) 이러한 측면은 신향림이 「양명과 주자, 그리고 소재와 퇴계」,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정치의 새 지평』, 학지원, 2016에서 자세하게 논의했다.

58) 양명학자 남언경은 “정공은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재주도 다른 사람이 가히 따르지 못할 바이다.”라고 하였고, 이발은 ‘당대의 제일 인물’로 평가하였다. 정여립의 정치적 개혁사상에 대해서는, 배동수, 「鄭汝立 研究: 政治史의 意味와 思想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에서 논의하였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작동한 중요한 원리가 바로 양명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양명학적 경세론의 한계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는 위의 두 번째 의의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때 나타난다. 경세론적 측면에서 노수신과 류성룡은 사뭇 다른 입장을 취했다. 류성룡은 주자학적 격치론에 철저하였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라는 위기적 국면에 매우 적절하게 대응하여 再造山河를 이룩한 명재상으로 칭송받는다. 노수신의 경우 귀양을 가기 전에 인물의 선악을 가리기 위하여 주자의 격치론을 강조한 바 있으나, 해배되어 다시 정계에 복귀하고 난 다음에는 양명학적 개혁의지를 보였고, <請先立志疏>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의 ‘입지’를 특별히 강조하는 방법론적 관념성을 보였다. 강한 개혁의지를 가졌던 정여립 등을 추천하여 뒷날 심각한 정치적 문제를 발생시켜 스스로 파직을 당하기도 했다.

노수신은 동서 사이에서 중립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그는 양측 모두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는 특히 자신의 건백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입을 다물거나 무수한 사직소를 올리기도 했다. 심지어 李珥(1536~1584)가 임금에게 서슴지 않고 직언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려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韓修는 “소재는 글만 능할 뿐만 아니라 기예도 있는데, 정승의 재주는 극히 졸렬하니 괴이한 일이다.”⁵⁹⁾라고 하였고, 李珥는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소재는 팔짱을 끼고 앉아서 먹는 사람과 같아서 이익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를 주는 것도 없다.”⁶⁰⁾라는 평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노수신에 대한 일련의 평가는 세무를 등한시한 그의 양명학적 경세론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관료형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실천성의 사상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수신을 전후로 하여 일정한 학문적 연대감 속에 있었던 인물로는 이언적과 류성룡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관료형 사람이라는 데 있다. 김종직과 조광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종과

59) 李珥, 『石潭日記』 卷上, “非但能文, 亦有伎藝, 而相才則極拙可怪.”

60) 李珥, 『石潭日記』 卷下, “譬之工匠, 則蘇齋乃拱手坐食者也, 雖無益亦無害.”

중종대를 거치면서 사림은 관료로 진출하게 되었고, 이언적 시대에 이르러서 이들의 사상적 바탕은 더욱 강고해졌다. 노수신은 이언적에게 ‘存心之要’를 물은 적이 있었는데, 이에 이언적은 忘却과 助長을 경계하며 ‘마음은 꼭 쥐면 부서지고 쥐지 않으면 없어진다’⁶¹⁾고 했다. 이러한 심학적 관심은 노수신을 통해 류성룡에게로 일정부분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여기서 이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이언적은 『大學章句補遺』를 집필하면서 주희의 『大學章句』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經과 傳의 編章體制를 바꾸어 새롭게 했다. 이에 노수신은 <晦齋先生大學補遺後跋>을 쓰면서 이언적을 옹호했고, 그 역시 『대학집록』을 편찬해 주자학과는 다른 양명학적 사유의 근거를 제시했다.⁶²⁾ 류성룡 역시 『대학』의 격치장을 두고, “또 나는 격치장을 반드시 따로 세울 필요가 없다고 늘 생각해 왔다. ‘大學之道, 在明明德’에서부터 바로 ‘平天下’에 이르기까지 격치의 설이 아닌 것이 없는 듯하다.”⁶³⁾라고 하면서, 주자와는 다른 양명학적 사유를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국가를 운영하는 실천성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낙동강 연안학문인 강안학적 시각⁶⁴⁾에서 일련의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점이다. 상주를 기점으로 한 낙동강 연안지역, 즉 상주, 선산, 성주, 칠곡, 대구, 함안 등에서는 영남좌도나 우도와는 다른 사상적 연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일례로 장현광이 “…… 이러한 이야기는 노소재가 편찬한 『개정대학』 가운데 상세하게 실려 있다. 우리 동방에서는

61) 盧守愼, <晦齋集序>([『晦齋集』]), “請存心之要, 久之先生指其掌曰, 有物於此, 握則破, 不握則亡.”

62)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대학집록』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 참조.

63) 柳成龍, 『西厓集』 권15, <大學章句補遺>, “愚意常以爲格致章, 不必別立, 恐自大學之道在明明德, 直至平天下. 無非格致之說.”

64)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08 참조.

본조의 유선 중 회재의 소견이 대략 이와 부합된다.”⁶⁵⁾라고 하면서 노수신과 이언적의 대학교본에 입각한 대학의 관점에 우호적이었던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노수신이 『夙興夜寐箴註解』를 짓자 이황은 그의 글에 선학의 느낌이 있다⁶⁶⁾고 비판하였으나, 칠곡의 장복추는 『夙興夜寐箴集說』을 지어 노수신의 설을 지지하며 다양한 곳에서 인용했던 것과 같은 맥락을 형성한다.

류성룡의 주재설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중용』의 ‘致中和’에 대해 ‘중은 主이고 화는 宰’라고 하자, 이현일은 주가 바로 재라며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안지역의 성주 학자 李震相은 류성룡의 설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書西厓柳先生主宰說後>를 쓴 바 있다. 나아가 류성룡은 사변적 학문보다 마음공부를 강조하며 상주의 정경세에게, “오직 마음心자를 가지고서 긴 해를 보내노라, 책상 위의 만 권 책을 버려둔 채.”⁶⁷⁾라 한 바도 있다.⁶⁸⁾ 심학적 분위기가 물씬 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류성룡은 퇴계학의 자장 속에 있으면서도 꾸준히 양명학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는데, 이는 상주의 洪汝河(1621~1678)가 8조목이 모두 명덕을 밝히는 하나의 목표에 있다고 한 생각으로 이어진다.⁶⁹⁾ 이것은 앞서 제시한 바 있듯이 류성룡이 대학의 참된 공효는 하나의 明에 있으며 八條目的 자세한 설명은 닦는 행위라고 한 것과 견해를 같이한다.

65) 張顯光, 『旅軒續集』 권5, <錄疑侯質>, “……備載於盧蘇齋編集改正大學中. 我東方本朝儒先晦齋李氏彥迪, 其所見大略亦符於此.”

66) 李滉, 『退溪集』 권10, <與盧伊齋寡悔>, “聚其光靈, 絕其思慮. 此兩語犯禪學, 請去之何如?”

67) 柳成龍, 『西厓集』 권11, <答鄭景任>, “惟將心字消長日, 拋却床頭萬卷書.” 여기에 대하여 류성룡 스스로는 “뜻은 禪에 아주 가까우나 배를 타고 가다가 강 한복판에서 배를 잃어버리면 一壺도千金의 값어치가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스스로 아니하지 못하는 것이라네.”라고 하면서 심학의 효용성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했다.

68) 류성룡의 주재설과 수양론에 대해서는 장승구, 「류성룡의 철학과 경세론 연구」, 『퇴계학보』 134, 퇴계학연구원, 2013, 58~64쪽에 자세하다.

69) 洪汝河, 『木齋集』 권9, <讀書筭記·大學>, “格物者, 明德之通, 致知者, 明德之充. 誠意, 爲明德之實, 正心, 爲明德之貞, 修身, 乃明德之成, 齊家, 乃明德之行. 治國, 則明德之發, 平天下, 則明德之達也.”

임진왜란을 중심에 두고 볼 때, 노수신은 그 이전에 국정을 운영하였고 류성룡은 그 이후에 국정을 운영하였다. 존덕성의 내적 심학적 성향을 지녔던 노수신은 개혁적 인사를 적극 추천하였으나 그의 뜻은 실행되지 못했고, 정여립의 난으로 파국을 맞았다. 그러나 류성룡은 양명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도문학의 즉물궁리의 자세와 함께 존덕성의 실천성을 겸비하였으므로 그의 실천성은 위기적 상황에서 더욱 빛이 날 수 있었다. 이처럼 단순하게 이 둘을 대비할 수는 없겠지만, 양명학이 위기적 국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실천 역량으로서 그 효과를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한다. 즉, 임진왜란기에 발휘되었던 류성룡의 양명학적 성취는 노수신이 이미 그 이전에 기반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노수신과 류성룡을 비교사상론적 측면에서 탐구한 것이다. 우리는 이 논의를 통해 조선시대 사상사에서 주자성리학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양명성리학은 비주류로서 주자성리학과 일정한 길항관계를 유지하며 조선의 사상사를 더욱 풍부하고 역동적이게 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양명학은 명분에 사로잡힌 주자 근본주의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실에 대한 능동적인 실천을 추동하는 사상적 기저가 되었다. 이는 조선의 사상사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던 것을 보여주는 증좌이기도 하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同異性의 측면에서 요약해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노수신과 류성룡은 다양한 측면에서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노수신의 고향이 상주이고 류성룡이 상주목사를 역임하였으니 이들은 지역적 친연성을 지니고 있었고, 1616년(광해군 8)에 도남서원에 동시에 추배되었으니 追崇도 함께 이루어졌다. 그리고 노수신은 류성룡의 아

버지 柳仲郢과 동갑으로 어릴 때부터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이들의 관계는 노수신과 류성룡의 관계로 발전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겸암정사 三印石 바위가 말해주듯이 이들은 鄭琢과 함께 영남을 대표하는 관료 문인으로 칭송될 수 있었다. 선학과 육왕학을 한다고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양명학에 일정한 관심을 가졌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상적 동질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노수신과 류성룡은 주자학을 기반으로 하되 시기적으로 주자학과 양명학을 수용하는 농도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의 경우 유배기를 전후하여 ‘주자학→양명학’으로 변화되었다면, 류성룡은 ‘양명학→주자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가 같은 질량으로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노수신은 만년으로 갈수록 良知說과 知行合一說 등 양명학의 핵심개념을 지지하며 경도되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류성룡은 양명학의 주요 개념을 적극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자체들에게 필사된 『양명집』을 잘 보관하도록 하거나 주희의 새로 만든 격치장을 인정하지 않는 등 양명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지니고 있었다.

셋째, 노수신과 류성룡은 격물치지와 존덕성·도문학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노수신의 경우 신에 관료로 활동할 때는 ‘止’의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을 취하였지만, 유배생활을 거치면서 傳注의 지리함을 부정하고 존덕성을 통해 인간이 지닌 선천적인 덕성을 밝히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다. 이에 비해 류성룡은 격물치지가 모두 心法이라고 하면서, 본체론적 측면에서 존덕성을 중시하지만 적용론적 측면에서 도문학을 경시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실무를 위한 바탕을 만들었다.

넷째, 노수신과 류성룡의 경세론과 그 실천의 문제는 이들의 양명학 수용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노수신은 치지를 통해 군주가 마땅히 군자와 소인을 변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고, 이러한 생각은 해배 이후 再仕宦期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관념적인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 스스로 군주의 立志를 강조하면서 이발과 정여립 등 개혁적인

인물을 적극 추천하였다. 이에 비해 류성룡은 제왕학을 明體適用之學으로 요약하면서 치세와 난세에 따라 경세를 달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에 따라 安民富國論과 국가체제의 개혁론, 重商主義 등 매우 구체적인 실천을 수행해 나갔다.

다섯째, 노수신과 류성룡 경세론의 의의는 사상사적 측면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자주의 일변도로 치닫는 조선 사상계에 일정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점, 양명학적 사유의 시대적 응전과 그 결과를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는 점, 관료형 사림이 지니고 있었던 실천성의 사상적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낙동강 연안학문인 강안학적 시각에서 일련의 연대의식을 지니고 있었던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임란 전에 활동한 노수신의 양명학은, 임란을 경험하면서 류성룡의 주자학에 바탕한 양명학적 실천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상사적 측면에서, 노수신은 이언적을 스승으로 삼아 이황과 사상적 경쟁을 하면서 류성룡을 탄생시켰다. 이황이 이언적의 행장을 찬술하면서 그에게서 성리학적 순수성과 깊이를 보았다면, 노수신은 이언적 찬술의 『대학장구보유』를 통해 그에게서 양명학적 분위기를 감지하였다. 한편 이황의 제자 류성룡은 스승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양명학을 비판하였지만, 만년까지 양명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놓지 않았다. 이처럼 양명학에 대한 수용과 비판, 그리고 비판적 수용을 통해 한국사상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는 주자학과 양명학의 역학관계에 입각한 한국사상사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일 수 있어 주목되어 마땅하다.

※ 이 논문은 2019년 11월 1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9년 11월 19일부터 12월 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2월 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奇大升, 『高峰續集』
盧守愼, 『穌齋集』
柳成龍, 『西厓全書』
柳成龍, 『西厓集』
柳成龍, 『懲恙錄』
柳壽垣, 『迂書』
柳 軫, 『修巖集』
李裕元, 『林下筆記』
李 珥, 『石潭日記』
李 滉, 『退溪續集』
李 滉, 『退溪集』
禹性傳, 『秋淵日記』
尹宣舉, 『混定編錄』
張顯光, 『旅軒續集』
鄭經世, 『愚伏集』
洪汝河, 『木齋集』
『宣祖修正實錄』
『宣祖實錄』

김태창, 「比較思想論 序說: 그 前提와 視角과 研究方向에 關한 豫備考察」, 『아카데미논총』 14, 세계평화교수협의회, 1986.
배동수, 「鄭汝立 研究: 政治史的 意味와 思想을 中心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9.
신향림, 「盧守愼의 초기 사상과 경세론」, 『泰東古典研究』 25,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9.
신향림, 「양명과 주자, 그리고 소재와 퇴계」,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정치의 새 지평』, 학지원, 2016.
연세대학교 서애학술연구단(김왕배 외), 『서애 경세론의 현대적 조망』, 혜안,

2016.

- 오종록, 「서애 류성룡의 군사정책과 사상」,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 이동환, 「16세기 조선 사상계의 동향과 노수신」, 『소재 노수신 선생의 사상·정치
의 새 지평』, 학자원, 2016.
- 이인철, 「퇴계의 이단배척과 교육적 함의」, 『교육철학』 59, 한국교육철학회,
2016.
- 이헌창, 「서애 류성룡의 경제정책론」, 『류성룡의 학술과 경륜』, 태학사, 2008.
- 장승구, 「류성룡의 철학과 경제론 연구」, 『퇴계학보』 134, 퇴계학연구원, 2013.
- 정우락, 「江岸學과 高靈 儒學에 대한 試論」, 『퇴계학과 유교문화』 43, 경북대학
교 퇴계연구소, 2008.
- 정우락, 「백곡 정곤수의 가족사랑과 가문의식 연구」, 『국학연구』 37, 국학진흥
원, 2018.
- 정호훈, 「소재 노수신의 『대학집록』의 지식 세계와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
- 조성을, 「소재 노수신(盧守愼)의 정치활동과 정치관」, 『한국사상사학』 51, 한국
사상사학회, 2015.
- 陈 来, 『有无之境：王阳明哲学的精神』, 中國 北京大学出版社, 2013.
- 최종호, 「柳成龍의 經學觀과 經世思想의 特徵」, 『泰東古典研究』 29,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12.
- 최진덕, 「주자학 속에 숨은 양명학: 노수신의 주자학과 그의 인심도심 해석」,
『한국사상사학』 51, 한국사상사학회, 2015.
- 추제협, 「異學 비판을 통해 본 ‘退溪心學」」, 『동양철학』 40, 한국동양철학회,
2013.

Abstract

The Theory of Governance by Sojae Noh Su-Sin and Seoae Ryu Seong-Ryong and Its Practice and Significance

Jeong, Woo-rak

Even though Noh Su-sin and Ryu Seong-ryong were very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deologically, they varied in the perception attitude toward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and the theory of governance. Both of them were based on Zhu Xi studies, but they were different in the position for Gyeokmulchiji, Jondeokseong, and Domunhak, the theory of governance, and its practice as well as the timing and concentration of the acceptance of Wang Yangming's teachings. While Noh believed that a monarch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men of virtue from men of small character through Chiji and made active recommendations of revolutionary figures, Ryu summarized the studies of kings into Myeongchejeokyongjihak and argued that governance should vary according to Chise and Nanse.

In the ideological circles of Joseon running up only toward the principle of Zhu Xi, both of them held significance in various ways including raising certain questions, showing the ways that thinking based on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took up the challenge of the times and its outcomes relatively clearly, providing the ideological grounds of practicality found in the bureaucratic Sarims, and sharing

certain solidarity in the viewpoint of Ganganhak, part of the shore studies of the Nakdong River. In addition,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sought after by Noh that was active before Imjinwaeran provided an important foundation for Ryu to secure the practice power of the teachings based on Zhu Xi studies after the war.

Ideologically speaking, Noh made an ideological competition against Lee Hwang under the guidance of his master Lee Eon-jeok and led to the appearance of Ryu. While Lee Hwang compiled Lee Eon-jeok's doings and found Neo-Confucian purity and depth in him, Noh sensed the atmosphere of Wang Yangming's studies in him through Daehakjangguboyu published by Lee Eon-jeok. Like his master, Ryu criticized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but he maintained his affection and interest for them until his later days. The acceptance, criticism, and critical acceptance of the teachings of Wang Yangming contributed to the further dynamic development of the ideological history in Korea.

keywords

Sojae Noh Su-sin, Seoae Ryu Seong-ryong, theory of governance, practice, Zhu Xi studies, Wang Yangming studies, Jondeokseong, Domunhak, critical acceptance

